



제주항 8부두 인근에 위치한 해상교통관제(VTS) 센터에서 관제사들이 긴장 속에 관제 화면에 집중한 선박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전경. 손정경기자

르포 '바다의 신호등' 제주항 VTS를 가다

선박 안전항행·사고예방 위해 긴장 또 긴장

■ 오늘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

제주항·서귀포 민군복합항 수역 내 선박 관제 선박 입출항 관리·선박교통안전 확보 등 업무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력충원 등 과제

정해진 길도 없이 수많은 섬과 암초를 피해 운항해야 하는 선박의 길을 안내해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바다의 신호등'이라 불리는 해상교통관제(VTS·Vessel Traffic Service) 센터다. 10일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제주항 8부두 인근의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았다.

지난 6일 오후 5시. "제주 VTS, 여기는 00호 감도있습니까?" 관제실 초단파무선전화기에서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자 관제사의 시선이 관제 화면에 고정된다. 흑여나 사고라도 날까 화면 백백이 표시된 선박들에서 관제사

는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제주항에는 여객선과 화물선, 위험물운반선 등 하루 평균 150여척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으며 여객선까지 포함하면 300여척 이상이 관제구역 내에서 감지된다. 제주항은 항 입구가 협소하고 지리적 특성상 태풍과 바람의 영향이 심해 관제사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관제사의 임무는 레이더와 통신기 등을 이용해 구역 내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선박들에 항로이탈, 위험구역 접근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또한 해양사고나 비

상상황이 발생 할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전파도 관제사의 몫이다. 제주항은 1999년 12월 VTS 시스템을 최초 도입했고 현재는 관제사 12명이 3개 조로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선박과의 하루 평균 교신량은 520여건에 달한다. VTS센터는 해양경찰청(연안VTS)과 해양수산부(항만VTS)로 이원화돼 운영되다 2014년 11월부터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됐다. 올해로 5년 차인 최익환 관제사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직업"이라며 "두 선박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선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는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위험성을 감지해 신속히 선박의 움직임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제사들은 휴식시간에도 긴급 상황을 대비해 관제실 안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또 수백 척의 선박을 관제하기에 현재의 12명이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관제사들의 업무는 그야말로 늘 과중하다.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한 관제사는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개선됐으면 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 망설임 없이 '인력충원'을 꼽았다. 그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지침에 따르면 관제센터 적정인원은 관제척(운영콘솔) 1대당 관제사 10명(9.41명), 관제팀장은 센터별 최소 5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 같은 국제지침에 따르면 관제척이 2개인 제주 VTS 센터는 최소 32명(관제사 20명)이 필요하나, 현원 17명(관제사 12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 VTS 센터인 PCCC(Port Operation Control)의 경우 총 80여명이 근무 중이며 홍콩 VTS 센터에서는 3개 섹터에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다.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수감 하룻만에 사망... 법원 "교도소 탓 아니다"

유족들 교도소 과실 주장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판부 "건강진단 했더라도 죽음 막지 못했을 것"

속보=지난해 벌금 20만원을 내지 않아 2일짜리 노역을 위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40대가 하루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본보 2017년 7월 13일자 4면)한 가운데 유족들이 교도소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

사는 제주교도소에서 사망한 송모(당시 43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2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뒤 이듬해 5월까지 480만원을 납

부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1일 나머지 2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에 검거돼 제주교도소에서 청소 등 잡일을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노역수 신분으로 수감됐다. 교도소 측은 송씨가 결핵을 앓았던 전력을 이유로 1인실에 격리수용했다. 다음날 22일 오전 4시55분쯤 송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인은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

증과 중증 지방간 등 내인사'였다. 송씨의 유족측은 형집행정지에 따라 제주교도소는 수용, 위생,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송씨가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2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송씨는 수용당일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알코올과 관계된 병력이나 건강상 특이점을 제주교도소측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망 직전까지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 증세를 호소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돈 받았다 돌려준 고위공무원 검찰 송치

업체 관계자 2명 뇌물공여 혐의 기소 시 제주 첫 김영란법 재판

제주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제주도청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서기관 김모(58·4급)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시행사 대표 이모(60)씨와 조경업자 전모(60)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김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있는 이씨 등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이다. 또 송진 측하

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된 편의제공 요청을 받자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돌려주고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5월 25일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현금과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편의제공 요청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술자리 예에 함께 있었던 부하 공무원 3명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식사 자리에 참석했을 뿐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공무원 재판이 열리게 된다. 송은범기자

태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실형

동조한 20대는 집행유예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18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태국인 여성을 고용, 411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남성들은 1시간당 18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태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태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씨를 도와 성매매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모(2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송은범기자

차귀도 해상서 어선 충돌... 선원 전원 구조

제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한 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5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5km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K호(31t·승선원 10명)와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Y호(6t·승선원 5명)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Y호가 전복됐으나 승선원

5명 모두는 사고 직후 K호로 옮겨 타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전원 구조됐다. 구조된 Y호 승선원 5명의 부상 여부 확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현재 전원 서귀포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한 상황이다. 해경 조사 결과 항해 중이던 K호가 조업 중인 Y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경기자

대평서 스쿠버 40대 사망

8일 오후 1시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대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를 하던 이모(45)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조흥준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 사용 및 후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품질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로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성회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

(주)제주시시스템비계 (주)한진철거

시스템비계 (클린사업) 등록업체 [소규모현장 시스템비계설치시 정부지원]

시스템비계 임대(판매)
안전 발판 임대(판매)
정확한 설계
안전시공

비계 공사 전문건설업 철거 공사 전문건설업 석면 해체, 제거업

관련문의 722-0407, 724-1420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